



◀ 왼쪽부터 해남공룡대축제, 공룡박물관 체험, 야간개장 모습.

“공룡이 살아있다”...해남공룡축제 국내 대표축제 입증

전년비 방문객 2배 ↑...첫 야간개장 ‘복적복적’ 공룡탐험대·공룡놀이터·25m 집라인 등 인기

해남공룡대축제가 지난해 2만5천여 명의 관람객에 이어 올해 2배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국내 대표 공룡축제임을 입증했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4-6일 3일간 열린 축제에 6만2천여명의 방문객이 해남공룡박물관을 찾았다.

올해 2번째를 맞는 해남공룡대축제는 ‘해남! 공룡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공룡박물관 무료 입장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공룡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잔디 광장에서 열린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에 참여하며 공룡 열차를 타고 드넓은 공룡박물관 곳곳을 누볐다.

공룡박물관 잔디광장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룡놀이터가 조성돼 25m 집라인과 에어바운스, 레일기차, 페달보트 등 신나는 놀이기구가 무료로 운영돼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공룡박물관에서는 어린이 공룡탐험대 운영 등 공룡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는 알찬 체험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4일에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으며, 공룡박물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하면서 화려한 빛과 조명으로 물든 색다른 공룡의 세계를 펼쳤다.

야간 개장 중에는 인기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박물관 옥상에서 쏘아올린 불



올해 2회를 맞이한 해남공룡대축제에 6만2천여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해남군 제공〉

꽃이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쇼도 펼쳐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하루 동안만 해남공룡박물관에 3만1천여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날과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등 늦봄에 인하여

오 행사로 박물관 내부로 이동해 운영했음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물리면서 해남공룡대축제가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임을 확인했다.

명현관 군수는 “국내 최대 규모인 해남공룡박물관의 자원을 활용해 어린이

와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과 가족 소풍 공간을 준비했다”며 “축제를 찾아온 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추억을 가득 담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축제 또한 더욱 알차게 준비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룡박물관이 소재한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천연기념물 304호로 지정돼 있다. 세계 최대의 익룡 발자국(25-30cm)과 세계 최초로 익룡, 공룡, 새발자국 화석이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곳이며, 8천300만년 전 생성된 물갈퀴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세계적인 공룡화석지다.

박물관과 함께 330만㎡의 야외공원, 공룡발자국 보호각 등이 조성돼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나주시,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도내 1위 첫 ‘달성’

1억1천500만원 확보...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나주시는 7일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성과금 1억1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전남도에선 22개 시·군을 평가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평가에서 나주시는 전년도 8위에서 2계단 상승한 도내 종합 6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정량지표 75개, 정성지표 16개 등 총 91개 지표에 대한 점진 결과와 정량 지표 90.6%를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 정성지표의 경우 7개 지표

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개청 이래 최초로 정성지표 종합 1위(공동)를 차지하는 경사를 맞았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문화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 ‘비만예방관리사업’,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이다.

나주시는 이번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지난해 5월 전 부서 보고회를 열어 지표 달성률이 높은 부서 직원들에

한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이후 재정성과금 1억1천500만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평가 성적은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뤄낸 뜻 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정지표, 전남도 역점시책에 발맞춰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역량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어린이날 후원 물품 전달

영광·고창 아동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 지원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어린이날을 맞이해 영광·고창군 아동복지시설에 물품을 후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영광군·고창군 아동복지시설 27개소의 어린이 465명에게 총 2천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사진〉

특히 전달한 물품들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돼 의미가 남다르다.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꾸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시, 물류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 박차

국제물류산업대전서 ‘목포 신항’ 홍보...맞춤형 투자상담 진행

목포시는 7일 “전남도와 목포신항만 운영자와 함께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국내·외 물류업체 및 화주(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를 대상으로 목포신항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국도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물류산업 전문 전시회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운송·서비스·설비 등 물류 분야 150여개 기업이 총 70여개 홍보 전시관을 운영, 물류업체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시는 전남도·목포신항만운영자와 공동으로 국내 업체(포스코·대한통

운 등)와 국외 업체(HANGZHOU FREEDOM, DAIFUKU 등) 등 총 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목포신항 현황 및 이점, 투자 환경, 지역 인센티브 등에 대해 알렸으며, 잠재 투자 기업 발굴을 위한 1대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목포신항 홍보 책자와 홍보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을 배부, 방문업체와 정보 교류를 통해 목포신항 물류 산업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구상했다.

목포신항만운영(주)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한 항만·물류업체에 목포신항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6년만에...제12회 무안읍민의 날 ‘성황’

군민 소통·화합...2천여명 참석

무안읍이 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무안읍민의 날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6년만에 개최하며 성황을 이뤘다.

〈사진〉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제12회 무안읍민의 날에는 무안전통시장에 김산 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정길수 도의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의 화합과 애郷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는 무안읍사무소부터 전통시장까지 풍물길놀이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난타, 밸리댄스 공연과 함께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시작했다.

기념식에서는 ▲군정유공상 박성옥(LG전자베스트샵 무안점 대표)·백영옥(무안흥어) ▲읍민의 상 이광성(성내리) ▲효행상 유창우(성남리) ▲감사패 박석환(평용리) ▲장학생 이원석(무안고 2)·이슬아(무안고 3)·천지연(백제고 1)·박수진(백제고 3) 총 9명이 수상했으며, 장수상은 고령의 어르



신들을 배려해 사전에 직접 가정을 방문하며 축하했다.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 읍민 노래자랑에서는 15팀이 참가해 축제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마이진, 농수로 등 유명 인기 가수가 출연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무안 전통시장에는 점포를 비롯한 여러 이동식 매대와 먹거리 트럭이 준비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숙아 무안읍장은 “코로나19로 인해 6년만에 개최된 무안읍민의 날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 기쁘고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읍민의 날을 계기로 무안읍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완도 해양치유의 날’ 기념일 지정 공모

31일까지...해양치유 위상 제고

완도군은 7일 “‘완도 해양치유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완도군이 역점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과 국내 최초로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대외적으로 알려 해양치유 확산 및 완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해양치유의 날’로, 국민의 해양치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해양치유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상징적인 일자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31일까지다.

신청은 소문24(옛 은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 전자우편(didgusal@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완도군은 6월 중 의미 전달성, 효과성,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면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 발표 등을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은 최우수(100만원), 우수(50만원), 장려(30만원) 등 3건을 선정해 시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치유기획팀(061-550-5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군, 지역자원 활용 예비창업자 모집...최대 1천500만원 지원

영암군은 7일 “오는 31일까지 ‘지역 자원 활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아이টে으로 사업에 나서는 창

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지역의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 예비 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평가, 선진지 견학, 창업 교육 등의 과정을 제공하며, 앞선 과정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

하려는 영암군민, 전업예정자이며, 총 8명을 선발해 최대 1천5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안내와 신청은 (재)전남인력개발원(061-463-2841)에서 한다.

/영암=나동호 기자